세계적 설치미술가인 중국 아이웨이웨이(가운데)가 싸이의 '강남 스타일'에 맞춰 말춤을 추는 '차오니마(草泥馬) 스타일' 동영상. 〈유튜브 캡처〉

아이웨이웨이, 말춤 추며 자국 정부 비판

'강남스타일' 패러디 '차오니마 스타일' 유튜브 전세계 주목

배불뚝이에 풍성한 턱수염을 기른 '할아버지'가 검은색 양복에 핑크색 티셔츠를 입고 나와 싸이의 '강남 스타일'에 맞춰 말춤을 춘다. 한 손에 수갑을 꺼내 흔드는가 하면, 수갑을 찬채 전형적 막춤을 춰댄다. '차오니마(草泥馬) 스타일'이라는 제목이 붙은 동영상이 유튜브에 오르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패러디 영상 속 어설픈 댄스의 주인공은 중국의 반체제 예술가이자 세계적 설치미술가인 아이웨이웨이. 그는 제 9회 광주비엔날레 참여작가이며 제 4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공동감독을 맡았다.

그가 출연한 동영상 제목 '차오니마 스타일' 중 '차오니마'는 중국어 욕설과 발음이 비슷해 정부의 인터넷 통제와 검열을 비판하는 누리꾼들이 은어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인터넷 등에서는 그가 싸이의 강남 스타일을 패러디해 중국 정부의 인터넷 통제와 자신의 가택연금 등을 에둘러 비판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 정부를 향한 아이웨이웨이의 비판 의식과 조롱은 제 9회 광주비엔날레에 출품한 작품 '언어 프로젝션'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매일 밤 6시부터 9시까지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벽면을 비추는 12개의 작품 곳곳에는 중국 정부에 대한 직설적 비판 의식이 담겨 있는 텍스트가 적지 않다.

"'중국사회'는 정보와 언론 자유의 어떠한 흐름에 대해서도 금지하는 사회다.…작가, 예술가, 웹사이트의 논평가들이 민주주의나 제한 완화, 개방, 개혁, 이성 등에 대해 반성하면 억류되거나 수감된다. 이것이 중국 현실이다."라고 꼬집는가 하면, 베이징 올림픽을 거론하며 "금메달로 국가 위신을 측정하는 것은 마치 남성 능력을 판단하기 위해 비아그라를 사용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한다. "나는 내가 반체제적 예술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정부가 반체제적 정부라고 생각한다"라는 말도 서슴지 않는다.

/김지을기자 dok2000@

"실패 아니다, 아쉽지만 다시 시작"

나로호 발사 연기에 연구원도 지역민도 허탈

"성공 할 때까지 지지 성원 보낼 것" 한목소리

"나로호 발사를 위해서는 600단계의 과정이 필요한데, 이번 문제는 240번째 단계에서 발견된 문제입니다. 발사 연기는 아쉽지만 한·러 양국 기술진은 발사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일 나로호 3차 발사가 연기된 나로우주센터 관계자들은 "아쉬움 속에서도 성공 발사를 위해 모든 작업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있다"고 밝혔다. 발사 5시간여를 앞두고 문제가 발견돼 우주센터 관계자들의 아쉬움은 그 어느 때보다 컸다.

발사 예정일을 하루 앞둔 지난 25일 오전 9시 10분부터 오후 3시 40분까지 진행된 최종 리허설(예행연습)에서도 1단(하단)과 2단(상단), 레인지시스템(추적시스템), 충돌회피분석(COLA·Collision Avoidance) 등에 특별한 이상 징후는 없었다.

또 지난 24일 나로호의 발사대 이송과 기립 과정도 순조로웠고 발사 예정일이었던 26일 변수였던 날씨마저 쾌청해 모든 준비가 물 흐르듯이 진행됐기 때문에 우주센터 관계자들의 실망은 더했다.

우주센터 한 관계자는 "그동안 잠도 못 자고, 심지어 약을 먹는 연구원들도 많았다"면서 "발사가 최종 연기됐다는 소식에 모두가 말문이 막혔지만,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힘을 내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흥에서 '우주의 문'이 열리는 순간을 기대했던 지역민들의 실망도 컸다.

나로우주센터 건립으로 삶의 터전을 옮겨야 했던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 옛 하반마을 이장 김동민(77)씨는 "앞서 2번 실패를 했지만, 이번에는 수월하게 일이 진행되는 것 같아서 잔뜩 기대를 했었다"면서도 "발사 연기가 됐지만 이달에 못하면 다음달, 그 다음달까지라도 성공할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며 나로호에 대한 성원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우주쇼'를 지켜보기 위해 고흥을 찾은 관람객들도 아쉬운 발길을 되돌려야 했다. 발사가 연기된 지난 26일 고흥 우주발사전망대와 남열해돋이해변 등 나로호 관망지점을 찾은 관람객들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재경고흥향우회 정의종(58) 회장은 "발사 연기는 실패가 아니다"면서 "'고흥의 꿈'을 더 높이 더 멋지게 날리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여기고 있고, 다음 발사 때는 재경 고흥향우회원들을 모아 성공을 기원하러 고향을 찾겠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러시아에 의존하는 나로호, 실패·연기 책임은 누구에…

나로호 1, 2차 발사 실패에 이어 3차 발사마저 연기되면서 러시아와의 나로호 공동 개발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불거지고 있다. 러시아가 만든 1단 로켓의 철저한 비공개 방침 때문에 기술 이전을 기대할 수 없고, 잦은 발사 실패와 연기의 책임 또한 모호하기 때문이다.

나로호 개발의 핵심은 러시아가 사용하고 있는 군용 로켓 엔진 기술을 이전받아 나로호 1단 로켓을 만들고, 한국은 2단 고체로켓과 과학위성을 개발해 나로호 발사체를 완성한다는 것이다. 발사체 전체는 '나로호'라고 불리지만 사실상 나로호의 1단 로켓은 러시아 것이며, 기술 또한 러시아가 가지고 있다.

나로호 3차 발사를 앞두고 열린 1단 로켓 공개 행사는 러시아 정보 당국의 철저한 감시 속에서 진행됐다.

전문가들은 나로호 개발 과정에 국내 과학계가 러시아 기술을 상당 부분 습득했다는 평가와 함께 구조적으로 국내 기술로 발사체를 실용발사할 수 있도록 예산 등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조선대 김재수 항공우주공학과 학과장은 "러시아가 국내에 기술 이전을 상당히 많이 해줬고, 한국은 발사체 개발을 위한 이미 60~70% 정도의 (기술을 습득한) 상당한 수준이다"면서 "이제는 엔진만 만들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관계자도 "지난 2차 발사 이후 수만 번의 원인 분석과 관련 실험을 했는데, 그 자체가 러시아의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였다"고 말했다.

이번 3차 발사 연기도 러시아의 전적인 책임이 아니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교과부 노경원 전략기술개발관은 "기술적으로 책임을 묻자면 러시아에 있지만, 기술 시험뿐만 아니라 점검과 헬륨 주입 등은 한국 기술이기 때문에 러시아로 책임을 돌릴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반면 이제는 순수 우리 기술로 한국형 발사체를 개발하기 위해 예산을 확충하는 등의 장기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2021년에 한국형 발사체를 실용발사하려면 최소 3조원 가량이 들어가며, 해마다 4000억원을 써야 한다. 하지만 올해 한국형 발사체 개발비는 444억원이었고 내년에는 800억원 뿐이다.

/오광록기자 kroh@

노인 무료급식비 지역 차별 크다

영암 3500원·함평 2000원… 끼니도 최대 6배 차이

끼니를 때우기 힘든 전남지역 노인들이 지역에 따라 질과 양이 다른 무료급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 끼 식사비 지원이 최대 75%가량 차이가 나고, 지원되는 끼니도 많게는 6배 차이가 나는 등 무료급식 지원사업이 불평등하게 진행되고 있다.

전남도는 28일 "최근 '노인 무료급식 지원사업' 운영실태를 확인한 결과 22개 시·군의 상황에 따라 지원되는 무료급식의 질과 횟수 등에 큰 차이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8억4000여만원(도비 25%·시군비 등 75%)을 들여 도내 노인 5559명에게 경로당 무료급식과 재가노인에게 식사를 배달해 주는 사업이다.

하지만 한 끼 지원 단가가 함평 등 8개군은 2000원이었고, 영암은 3500원에 달하는 등 편차가 컸다. 심지어 영암, 무안 등 2곳은 재가노인 식사배달을 전혀 하지 않아 전남도가 사업 시행 촉구 공문을 발송했다.

시·군별로 급식을 제공하는 일수도 달랐다.

주 1~2회 급식을 제공하는 곳은 담양, 구례, 고흥, 보성, 화순, 장흥, 영암, 무안, 함평, 장성, 완도, 신안 등 12개 시군이었다. 반면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곡성, 강진, 해남, 영광, 진도 등 10개 시·군은 주 5~6회 급식을 주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지역에 따른 이들 노인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고려해 2013년 급식 지원단가를 3000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후속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국립광주과학관 운영비 전액 국비로"

강운태 시장, 광주 찾은 김총리에 지원 건의

강운태 광주시장이 국립광주과학관 운영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강 시장은 지난 26일 광주를 방문한 김황식 국무총리에게 "북구 오룡동에 건립 중인 국립광주과학관은 교과부의 과학관 육성 기본계획에 따라 건립되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정부 지원을 건의했다.

정부는 개관 이후 매년 국립광주과학관 운영에 들어갈 운영비 90억원 중 입장료 등 자체수입 7억원(추정)을 제외한 83억 원에 대해 국가 60%, 광주시 40%의 운영비 분담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광주시는 국립과학관이 국가사업인 만큼 정부가 전액 운영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황식 국무총리는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지원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북구 오룡동에 들어설 국립광주과학관은 광주·전남의 과학기술 저변 확대를 위해 국비 594억원, 시비 254억원 등 총 848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국책사업으로, 첨단과학산업단지 내 부지 9만8248㎡에 건립중이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전기요금 올리면 납부거부"

전국 도시철도 강력 대응

한국전력의 공공부문 전기공급약관 개정으로 광주·전남 등 자치단체의 '전기요금 폭탄'이 우려된다는 본보 보도〈10월 10일자 1면〉와 관련, 전국 도시철도운영기관들이 요금납부 보이콧 등 강력 대응하기로 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28일 광주도시철도공사에 따르면 전국 14개 도시철도 운영 기관장들은 지난 26일 광주도시철도공사에서 회의를 열고 개정된 한전의 전기공급약관 적용을 반대하기로 했다. 기관장들은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도시철도는 원가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며, 전기요금 인상은 철도운임의 인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한전이 개정된 전기공급약관을 고수한다면 전기요금 납부 거부운동 등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진표기자lucky@

고개 숙여 감사 드립니다

지난 10월 19일 저희 어머니 고강덕희(비비안나)께서 운명하시어 저와 온가족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비탄에 잠겨 있을 때 참으로 많은 분들이 빈소에 오셔서 고인을 추모하고 저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황망중에 일일이 예를 표하지 못한 조문객 여러분께 지면을 빌어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장례식을 경건하게 이끌어주신 광주 지산동 성당 연도회 교우님들께도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덕분에 장례를 무사히 마친 저희 유족은 어머니의 뜻대로 더욱 우애하며 아름답게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10월 29일

유족대표 조 경 혜

딸 성 은 정 승 영 영

사위 경 완

자부 자 자 자 자 현 탁 호 주

손자 오 강